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박 동 찬*

1. 머리말
2. 전쟁 전 군사고문단의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
3. 전쟁의 발발과 군사고문단의 초기 대응
4. 군사고문단의 전선 복귀와 조직 재편
5. 맺음말

1. 머리말

주한미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은 1948년 8월 24일 임시군사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PMAG)으로 출발해 1971년 4월 1일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Joint U.S. Military Assistance Group-Korea: JUSMAG-K)에 통합될 때까지 약 23년간 한국에 존재했던 미국의 '군사자문기구'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주요 임무는 한국군에 대한 자문활동과 한국에 제공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되는 군사원조의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군사고문단은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군사적 보완장치'의 성격을 띠고 창설되었던 만큼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훈련, 군수업무 등 한국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활동의 영역으로 삼았다. 따라서 군사고문단의 계획과 결정사항은 한국군의 운용기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1949년 7월 고문단 창설 이후부터 1950년 7월 초미군 전투부대의 한반도 복귀전까지 약 1년간은 군사고문단의 계획과 결정 사항이 한국군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군은 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또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군사적 충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1949~50년 시기 군사고문단과 한국군은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군의 형성을 비롯해 한국전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고문단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고문단과 한국군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외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소이어(Robert K. Sawyer)의 “주한미군사고문단: 평화와 전쟁 시기의 주한미군사고문단(*Military Advisor in Korea: K MAG in Peace and War*)”이 있으며¹⁾,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이현의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과 안정애의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가 있다.²⁾ 이들 연구를 통해 1948~50년 시기 군사고문단이 시행한 한

1)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 in Korea: K MAG in Peace and War*,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소이어는 1951~55년 미 육군 군사연구실에 근무하면서 '군사고문단사'를 집필하였다. 당시 현역 대위였던 소이어는 근무지 변경으로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원고는 초고로 남겨져 있다가 험즈(Walter G. Hermes)에 의해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1962년에 공간되었다. 그의 초고는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 MAG Peace & War, Correspondence to Supporting Documents, Box 2에 들어 있다.

2) 조이현, 1995,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정애, 1996,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한국군 창군과정(1945~1950)에서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국군 각 사단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시행, 각종 군사학교의 개편과 신설, 장교들의 미국유학 주선, 한국의 내부 안정화를 위한 공세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군사고문단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임무도 병행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한 시기의 고문단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즉 당시 군사고문단이 판단하던 전쟁 발발 가능성의 정도와 범위, 그에 따른 한국군 작전지원의 내용, 개전 직후의 군사고문단 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사고문단의 한국전쟁 인식과 초기 대응이 어떠한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전쟁 전 군사고문단 활동의 성격과 함께 전쟁 초기 상황의 재구성과 재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자료들의 발굴을 통해 전쟁 발발 전후로 한 시기의 군사고문단 활동을 실증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전고문관들의 증언과 수기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자료를 소개하면 ‘그린우드 문서’와 ‘에머리치 문서’를 들 수 있다. ‘그린우드 문서’는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30분부터 1950년 6월 28일 정오까지의 사건 경과(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라는 제목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문서상에서 참모회의를 주도하고 민간인 소개작전(疏開作戰)을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오고, 등장하는 주요 참모진의 명단을 비교해 볼 때, 당시 고문단 부참모장이었던 그린우드(Walter Greenwood Jr.)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전쟁 발발 초기 군사고문단 사령부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린우드의 문서가 전쟁 발발 초기 군사고문단 사령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한국군 제3사단 선임고문관이었던 에머리치(Rollins S. Emerich)가 작성한 「1950년 한국전쟁 초기 역사(Early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는 지역에 파견된 고문단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문서는 에머리치가 1953년 11월부터 1954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소이어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된 초고로 분량은 78페이지이다. 각각의 원고가 보내진 날짜는 1953년 11월 20일(1쪽~13쪽), 12월 1일(14~26쪽), 12월 3일(27~41쪽), 12월 28일(42~58쪽), 1954년 1월 13일(59~78쪽)이며, 소이어가 이를 종합하여 묶은 것이다. 이 원고에는 1950년 6월 22일부터 한국군 제3사단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국전쟁 초기 경상도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³⁾

2. 전쟁 전 군사고문단의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은 1949년 7월 1일 임시군사고문단을 모체로 하여 정식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군사고문단의 정식 인가병력은 479명(장교 186명, 부사관 4명, 간호사 1명, 사병 288명)이었으며, 약 2개월 후인 10월 19일에 472명(장교 181명, 부사관 7명, 간호사 1명, 사병 283명)으로 조정되어 전쟁 발발 때까지 유지되었다.⁴⁾ 하지만 군사고문단의 실제 병력은 인가 병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949년 12월에 497명(장교 178명, 사병 298명, 군무원 21명)이었다가 1950년 6월 1일 479명(장교 176명, 간호사 1명, 부사관 5명, 사병 278, 군무원 19명)으로 줄어들었다.⁵⁾

3)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Correspondence to Supporting Documents, Box 2.

4) "Status of Military Problems on Korea"(1949. 7. 1), "Status of Military Problems on Korea"(1949. 7. 1), RG 319, Entry No. 154, ACofS(G-3) Operations Decimal File 1949-1950, Box 163;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RG 554, Entry No. A-1 1355, KMAG 8202nd Army Unit AG Section, *Semi Annual Historical Report, 1 July 1949 to 30 June 1950*, Box 29.

5)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Annex No. II: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Annex No. II,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군사고문단은 주한미대사관, 경제협조처, 합동행정위원회(Joint Administration Services: JAS)와 더불어 주한미사절단(American Mission in Korea: AMIK)의 일부로 편성되었으며,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았다. 원래 미 육군부는 군사고문단의 작전 권한을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허용한 상황에서, 고문단을 무초(John J. Muccio) 대사의 행정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그러나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군사고문단에 대한 예속⁶⁾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문단을 미 대사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육군부에 전했다.⁷⁾ 이러한 맥아더의 주장은 군사고문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고문단을 극동군사령부 예하의 정식 편제부대로 설치해 직접 통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여 주재국 대사가 '컨츄리팀(Country Team)'을 이끄는 재외공관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제도는 미국이 1947년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면서 구상한 것으로 각국에 파견된 미 행정부와 군의 파견기관들을 현지 주재 미국대사가 지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⁸⁾

결국 군사고문단은 주한미사절단의 일부로 무초 대사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군 지휘체계상 극동군사령부가 아닌 미 육군부의 직할기구가 되었다. 주한미사절단과 군사고문단의 관계는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었다. 원조의 수단·방법·범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군사고문단은 주한미대사관과 공식적인 회합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협조하였다. 그 밖에 군사적인 명령과 행정에 관해서는 직접 미 육군부와 교통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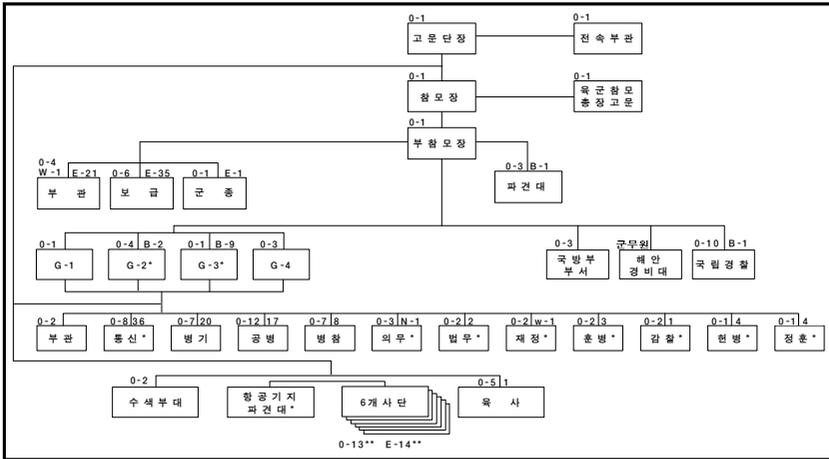
6) 예속(隸屬)이란 배치된 부대나 인원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그 대부분의 기능을 통제 관장(행정적)하는 것을 말한다(김광석, 1993, 『용병술어연구』 병학사, 346쪽).

7) "CINCFE to DA"(1949. 4. 23), *GHQ, SCAP and FEC History Report, 1949*, vol. II. Robert K. Sawyer, 앞의 책, 46쪽 재인용.

8) Robert B. Okley, Michael Casey, Jr., "The Country Team : restructuring America's first line of engagement", *Strategic Forum*, Sept., 2007.

9) "Interview, Col. W. H. Steling Wright"(1953. 1. 5), RG 319, Entry No. 181, Office

이러한 지휘체계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극동군사령부는 고문단의 병참지원과 유사시의 미국인 소개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로 권한을 제한받았으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고문단과 직접 관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극동군사령부는 1949년 6월 서울에 설치한 한국연락사무소(Korean Liaison Office: KLO)를 통해 군사고문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또 '소개작전의 협의'라는 명목하에 군사고문단 책임자의 정기적인 극동군사령부 방문을 주선했다.¹⁰⁾



〈그림〉 전쟁 발발 전 주한미군사고문단 조직도

※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MG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RG 554, Entry No. A-1 1355, KMGAG 8202nd Army Unit AG Section, Semi Annual Historical Report, 1 July 1949 to 30 June 1950, Box 29.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GAG Peace & War, Box 2: "Advisor's Handbook"(1949. 10. 17),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현대사자료 총서: 주한미군사고문단 문서』 46, 376쪽.
 10) "DA, WARX 90992"(1949. 7. 1), Office of the Chief, KMG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KMGAG Relationship with FEC", Orientation Folder(OFl dr), sec. I. 날짜 미상의 이 폴더는 후임자를 위해 로버트 장군이 1950년 3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OCMH 파일에 수록되어 있다.

- ※ 참고 : 1. O(장교), W(부사관), N(간호사), E(사병), 숫자만 기록(사병)
 2. *는 해당는 병과의 한국군 고문관 업무와 고문단 참모 임무 동시 수행
 3. ** 한국군 각 사단에 배치될 예정 인원

주한미대사와 미 육군부로부터 이중적으로 통제를 받던 군사고문단의 내부 구조는 앞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문단장 밑에 참모장과 부참모장, 그리고 일반·특별참모부로 고문단사령부가 구성되고, 각 지역의 한국군 주둔지역에 파견대가 배치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훈련, 군수업무 등에서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고문단은 소위 '상대역제도(Counterpart System)'라는 운영 방식을 한국군에 적용했다. 상대역제도는 한국군의 국방부장관, 육군총참모장, 육군본부의 일반 및 특별참모, 각 기술·행정 근무부대장, 각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고문관 1명씩을 붙여 함께 근무하고 행동하면서 상호 토의하고 조언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고문단에서는 상대역제도를 "고문관과 한국군 지휘관간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해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¹¹⁾

이러한 조직과 제도하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군사고문단의 주요 활동은 한국군의 교육훈련 지도와 비정규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군사고문단의 한국군에 대한 훈련지도는 크게 한국군 각 사단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시행, 각종 군사학교의 설치를 통한 지도, 장교들의 해외유학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부대의 전술훈련 강화와 지휘관 양성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군사고문단이 계획한 한국군에 대한 훈련계획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한

11) Robert K. Sawyer, 위의 책, 58쪽. 당시 고문단에서는 상대역제도를 'Counterpart System' 또는 'Opposite Number System'으로 혼용했는데, 의미상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q. Eighth army, *Information Brochur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and Republic of Korea Army*, 12 March 1953, RG 550,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ian's Office,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KMAG to History of the Korean War, Box 44.

국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미국식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¹²⁾ 이와 더불어 군사고문단은 1948~50년 남한에서 활발히 전개되던 게릴라 활동을 한국정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간주하고서 공세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1950년 6월의 군사고문단 <반년간보고서>에는 “1949년 10월 1일부터 1950년 5월 1일까지 태백산, 지리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해 3개의 대규모 게릴라 집단을 거의 와해시켰으며”¹³⁾, “현재 강원도에 60명, 경상도에 70명, 전라도에 130명의 잔여 게릴라들이 존재하지만, 더 이상 국가안보와 공공의 평화에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만큼 대비정규전에 대한 고문단의 평가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다.¹⁴⁾

하지만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교육훈련과 비정규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는 달리 38선 분쟁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규모 군대 증강과 복진 주장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해 1949년 5월 초 개성에서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5월 7일 이승만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로버츠 군사고문단장과 무초 대사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38선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자리에서 로버츠는 “개성사건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침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어떠한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¹⁵⁾ 군사고문단은 이후 계속해서 발생했던 38선 분쟁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사관과의 협조 하에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적절히 제어하고자 했다. 이러한 군사고문단의

12) 이 시기 한국군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조이현,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 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6, 310~316쪽; 안정애,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142~146쪽 참조.

13)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14쪽,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14)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Annex No. X III,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15) “주한미대사 무초의 회담비망록”(1949. 5. 10), *FRUS 1949*, vol. VII, 1016~1018쪽.

입장은 한국군 작전계획의 수립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군사고문단은 1949년 말부터 북한의 전차·야포·자주포 등 소련제 무기의 도입, 중공군내 한인사병의 북한 입국 및 병력 증강, 교량과 도로 보수, 병력의 남진배치 등에 관한 무수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 육군부에 보고하였다. 특히 195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차들이 남진 배치되고 있다는 정보들이 군사고문단 정보망에 접수되었으며, 이는 고문단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KLO부대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¹⁶⁾ 이를 통해 볼 때, 고문단에서는 전쟁 징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고문단에서는 이러한 전쟁 징후들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1950년 3월 25일에 작성된 ‘육군본부 작전명령(약칭 ‘작명’) 제38호’, 일명 ‘육군방어계획’에서 확인된다. 작명 제38호는 본문과 별지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지부록 제4호의 ‘육군방어계획’이 작전명령의 핵심내용이다. 현재 ‘작명 제38호’는 두 가지 판이 존재한다. 하나는 육군본부에서 영인한 『한국전쟁사료』(62)에 수록된 것이며, 또 하나는 군사편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원문서의 사본이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통해 ‘작명 제38호’의 성격과 작성주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¹⁷⁾

‘작명 제38호’의 내용과 작성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연구서는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이다.¹⁸⁾ 『6·25전쟁사』에서는 작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6) 주한미군사고문단과 KLO의 대북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정병준, 『한국전쟁』, 2006, 돌베개, 653~661쪽 참조.

17) 『한국전쟁사료』에 수록된 ‘작명 제38호’는 필체와 한글 사용법 등을 고려할 때, 이기(移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과 비교했을 때 가감한 부분이 많으며, 본문과 부록을 혼합해 기술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에 대한 면밀한 사료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안용현의 저서에도 ‘작명 38호’가 수록되어 있는데(안용현, 1987, 『한국전쟁의 허와 실』, 고려원), 『한국전쟁사료』와 원문 자료를 혼합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 641~650쪽. 정병준의 연구에서도 ‘작명 제38호’가 분석되어 있지만, 주로 웅진지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사』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 ① 국군 방어계획의 기본개념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첫째, 용진지구의 육군부대는 적의 공격시 인천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 둘째, 개성지구의 육군부대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설정된 임진강 남안의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기타 다른 부대는 계속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후방지역 예비사단은 적의 공격시 역습부대로 운용되도록 계획하였다. 후방지역 경계는 청년방위대 등으로 후방경계 부대를 편성하여 관할 지역내의 해·공군 부대와 협조하여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 ② 그러나 38도선에서 적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한 지역의 큰 강을 이용하여 지연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연전은 최초 한강 이남으로 전략적인 철수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강선, 대전선, 낙동강선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계획하였다.¹⁹⁾

이 글의 원 출처는 전사편찬위원회가 1978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사』 제2권이다.²⁰⁾ 그런데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에서는 위의 『6·25전쟁사』 내용 중 ②부분, 즉 “그러나 38도선에서 … 전개하도록 계획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①번 내용만이 기술되어 있다. 실제로 ‘작명 제38호’에는 ②와 관련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의 내용은 사후(事後) 전쟁의 전개과정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①과 관련해 ‘작명 제38호’ 원문에는 북한군 공세를 서울 이북지역에서 단계별로 격파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방침 : 군은 투명도 제1과 같이 중점을 의정부 정면에 보지(保持)하고 진전(陣前)에 적을 섬멸하려 함.
- 전투 각 기(期)의 지도(指導):
 - A. 초기(경계선 전투) : 투명도 제1 (A)선에서 진출을 지연시킴. 지연 전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 641~650쪽.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8, 『한국전쟁사: 북한 괴뢰군의 남침』 제2권, 56~57쪽.

투는 주진지 전면의 교량 및 도로 파괴를 실시하여 (B)선까지 전진함 (교량 및 도로 파괴계획에 의거), 일방(一方) 제2, 제3, 제5사단을 집결하는 동시에 웅진방면과 제8사단은 주작전이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극력 견제공격을 취하고 적의(適宜) 유격전을 감행하여 적의 동서측방을 위협함.

- B. 제2기(주저항선 전투) : 투명도 제1 (B)선에서 전군의 전 화력 및 역습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를 실시하여 적을 섬멸시키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도 동 선상에 교착시킴. 전투지도상 불리한 경우에는 (C)선까지 지연전투를 유지하여 전진함.
- C. 제3기(최후 저항선 전투) : 전 화력 및 역습으로 적 전력을 철저히 분쇄 섬멸하여 차(此) 진지에서 최후까지 확보함.

여기서 말하는 (A), (B), (C)선은 모두 문산-의정부-춘천-주문진선의 이북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작전계획은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38선 부근의 충돌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6·25전쟁사』에서는 ‘작명 제38호’의 작성주체와 관련해 “당시 미군사고문단측에서는 38선의 방어계획이나 적 침공시의 철수작전, 또는 공세이전의 작전계획 등에 관해서 이를 지도한 바 없었고, 모든 계획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978년도 『한국전쟁사』에서도 발견되는 언술이다. 하지만 군사고문단이 1949년 12월에 작성한 <반년간보고서(Semi-Annual Report)>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방어계획의 기본틀이 고문단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년간보고서’ 중 ‘제4부 한국군 상황, 4. 방어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8선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은 21개 연대, 2개 독립대대, 1개 기갑연대로 구성된 8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 전술부대의 약 30%가 대계릴라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방어계획은 서울로 향하는 접근로상의 ‘거점(Strong Point)’방어를 요구한다. 한국 외부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 웅진반도의 부대들과 임진강 서쪽의 부대들은 병렬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매우 우려되는 접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제1사단과 제7사단 지역이 가

장 중요하다. 동쪽의 제6사단과 제8사단은 기동을 제한하는 지형 때문에 쉽게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제6사단과 제8사단은 한국군의 예비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침략행위를 저지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군의 예비 병력은 수도사단, 제2사단, 제3사단, 제5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단들은 현재 예하 연대들 대부분이 대게릴라전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이들 예비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국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경찰이 담당하게 하는 것을 기대한다. 우선 순위에 따라 예비대에 부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계획에 따라 반격한다. 둘째, 제1사단과 제7사단을 증원한다. 셋째,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증원한다. 넷째, 국내 게릴라들을 토벌한다. 한국군이 현재의 계획을 준수한다면 중공군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북한군을 견제하고 일소할 수 있다.²¹⁾

‘반년간보고서’에 나타난 방어계획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분명 4개월 후에 만들어진 ‘국군 방어계획’의 원형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볼 때, 1950년 3월 25일 하달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해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은 북한군에 의한 전면전을 가정한 계획이라기보다 서울-38도선 사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국지도발’, 즉 서울 이북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방어계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고문단은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와 38선 전진배치라는 전쟁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미국 내에서 만연했던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소련의 괴뢰인 북한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논리²²⁾가 군사고문단내에서도 만연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 Hq. KMAC,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RG 319, Entry No. 154, Box 162.

22) 정병준, 앞의 책, 672쪽.

3. 전쟁의 발발과 군사고문단의 초기 대응

(1) 군사고문단사령부의 동향

전쟁 발발 당시 군사고문단의 병력은 장교 181명, 사병 286명 등 총 467명이었으며, 군사고문단의 구조는 고문단사령부와 각지의 파견대로 구성되어 있었다.²³⁾

개전 당일 군사고문단은 고문단장과 참모장이 공석이었다. 임시군사고문단 시절부터 단장직을 수행하던 로버츠 준장은 전역을 위해 1950년 6월 15일 한국을 떠났으며, 참모장 라이트(W. H. S. Wright) 대령도 미 국방산업대학 입교를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²⁴⁾

군사고문단장과 참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게 되자 군사고문단의 지휘체계는 일시에 마비되었다. 군사고문단은 6월 26일 라이트 대령이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통신 선임고문관이었던 스투라이스(Carl H. Sturies) 중령에 의해 임시로 운영되었지만, 고문단사령부 내에서조차 누가 고문단을 지휘하는 지 혼선이 야기될 정도였다.²⁵⁾ 그리고

23) "KMAG, Historical Data, G-1 Section, TAB E: G-1 Activities"(Undated),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24) Robert K. Sawyer,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119쪽.

25) 1949년 9월에서 1950년 7월까지 군사고문단장 부관이었던 메이(Ray B. May) 소령은 1950년 6월 25일 당시 마호니(Mahoney) 중령이 군사고문단을 책임지도록 임명되었지만, 현 계급으로의 진급일이 빠른 스투라이스가 지휘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당시 군수참모였던 비어만(L. D. Vieman)도 마호니가 군사고문단의 책임자라고 알고 있었다("Ray B. May to Robert K. Sawyer"(1954. 2. 11), "Taegu Paper of L. D. Vieman"(1951. 2. 15),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당시 군사고문단장직을 대리한 이는 스투라이스 중령이었다. 이는 1950년 6월 23일 주한미대사 무초가 군사고문단장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고문단장 대리인 스투라이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주한미대사(Muccio)가 주한미군사고문단장(Sturies)에게"(1950. 6. 23), *FRUS 1950*, vol. Ⅷ, 123쪽), 또 스투라이스 본인도 "1950년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군사고문단장직을 수행했다"고 증언하였다("Carl H. Sturies to the Captain Robert K. Sawyer"(1954. 1. 9),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휴일이라는 상황에서 서울의 군사고문단 사령부와 전투부대간의 연락체계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군사고문단 작전참모인 세드베리(George R. Sedberry) 소령이 고문단 주요 참모들에게 상황을 전달한 것은 북한군의 공격이 있는 지 약 2시간 후인 6월 25일 오전 6시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대사관에 전달된 것은 그보다 1시간 후인 오전 7시였다.²⁶⁾ 그리고 오전 8시에 이르러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군사고문단 참모회의가 열렸다.

비공식으로 진행된 참모회의에는 무초 대사,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 참사관, 에드워즈(Bob Edwards) 육군무관, 스투라이스 중령, 그린우드 중령, 마호니(William J. Mahoney) 중령, 비어만(Lewis D. Vieman) 중령, 세드베리 소령 등이 참석했으며, 전선 상황과 미국인 소개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군사고문단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을 '전면전'이 아닌 '38선상의 충돌' 정도로 간주하였다. 전술 브리핑을 담당한 마호니 중령은 북한 공군기의 출현이 없고, 지상군의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38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공격을 '대규모 병력에 의한 수색 정찰'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²⁷⁾

비공식 참모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군사고문단사령부에서는 고문관들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였다.²⁸⁾ 하지만 휴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GAP Peace & War, Entry, Box 2). 그러나 스투라이스는 명목상 고문단장직을 수행했을 뿐 개전 당일 실제로 군사고문단을 지휘한 이는 고문단 부참모장이었던 그린우드(Walter Greenwood Jr.)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그림〉“전쟁 발발 전 주한미군사고문단 조직도”의 지휘체계도에서 확인되며, 또 개전 당일 고문단 본부사령에게 미국인 소개 명령을 내리는 것도 부참모장 그린우드로 확인되기 때문이다(“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GAP Peace & War, Box 2).

26)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1980, 『전화속의 대사관』, 한성사, 19쪽.

27)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GAP Peace & War, Box 2.

28) “Ray B. May to Sawyer”(1954. 2. 11),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GAP Peace & War, Box 2.

진행되지 못하였다. 선임고문관들과 주요 행정장교들이 집결을 완료한 것은 오전 9시 30분경이었으며, 일부 고문관들은 오전 11시에 있었던 교회 예배 때까지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군사고문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단순한 38선 충돌이 아니라 전면전의 양상으로 파악한 것은 오전 9시경이었다. 이때 용진의 한국군 제17연대 고문관들이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연대가 궤멸되고 있다는 긴급 보고를 전하면서 항공 철수를 요청하였다.²⁹⁾ 뒤이어 문산의 한국군 제1사단에서도 개성이 북한군에게 함락되었다는 무전이 전해졌다.³⁰⁾

군사고문단은 오전 10시경에 북한군의 공격에 관한 첫 전문을 육군부에 전송하였다. 이 무렵 주한미대사 무초도 국무부에 한국 상황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들의 전문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육군부와 국무부에 수신되었는데, 수신 시각은 군사고문단의 전문이 워싱턴 시각 6월 24일 오후 9시 21분, 무초 대사의 전문이 오후 9시 26분이었다.³¹⁾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군사고문단은 매 4시간마다 상황보고서를 육군부에 발송하였으며, 발신문의 요약본을 극동군사령부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전선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또 부정확하고 시기적절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고문단은 계속해서 한

29) 위의 문서. 용진에 주재하던 고문관은 5명이었으며, 이들은 스윅크(Lloyd Swink) 소령과 브라운(Frank Brown) 중위가 몰고 온 L-5기에 동승해 오전 10시 35분 용진을 출발, 서울로 복귀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전쟁사』 1권(개정판), 467쪽). 용진 지구 고문관들의 소개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의 조종사는 그 공로로 동성무공훈장을 받았다.

30) Roy E. Appleman 저, 육군본부 역, 1963,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27쪽.

31) "Memorandum for General Collins, sub: Invasion of South Korea"(1950. 6. 25), RG 319, Entry No. 2, Army Chief of Staff 1950 Decimal Files-Korea, Box 557. 전쟁 발발이 미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연합통신 기자에 의해서였다. 군사고문단과 무초의 전문에 앞서 연합통신 한국 주재기자 제임스(Jack James)가 전쟁 발발 기사를 연합통신 본사에 전송하였으며, 이 기사는 워싱턴 시각 오후 9시 4분에 도착하였다(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저/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1990,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58쪽). 당시 주한미대사관 1등서기관이었던 노블의 회고에 의하면, 주한미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뉴스로 취급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충고했지만, 제임스 기자가 무초 대사의 전문에 앞서 기사를 발송했다고 하였다(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1980, 『전화속의 대사관』, 한성사, 21쪽).

32)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국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동경의 극동군사령부에 긴급전문을 보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10일분의 탄약 보급을 요청하였다.³³⁾

하지만 전쟁 발발 당일 미 육군부와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향후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6월 25일 군사고문단사령부에 내려진 지시는 극동군사령부가 무초 대사를 통해 전달한 '미국인 소개' 명령이 유일하였다.³⁴⁾ 군사고문단의 실질적인 상위 책임 기관인 미 육군부는 이날 어떠한 지시 사항도 하달하지 않았다. 또 1년 전 미 육군부가 제시한 군사고문단 훈령에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사고문단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사고문단 참모진은 자체적으로 향후 행동방향을 모색하였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는 고문관들이 무기를 들고 한국군과 함께 싸워서 북한군을 격퇴시킨다. 둘째는 한국군의 작전 수행을 조언한다. 셋째는 한국의 운명을 그들 자신의 손에 맡기고 군사고문단은 철수한다는 것이었다.³⁵⁾ 이 밖에 또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북한군의 서울 점령시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더불어 '외교적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무초 대사가 제의한 것이었지만, 대다수의 고문관들이 반대하여 철회되었다.³⁶⁾ 이러한 여러 대안 중에서 군사고문단이 선택한 방안은 철수에 중점을 두고 소수의 인원만으로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군사고문단은 즉시 주한 미국인 소개작전에 들어갔다. 소개작전은 1949년 7월 14일 마련된 '크룰러계획(Plan Cruller)'에 따라 진행되었다.³⁷⁾ 크룰러

33) Robert K. Sawyer, 앞의 책, 120쪽.

34) Roy E. Appleman 저, 육군본부 역, 앞의 책, 38쪽.

35) Robert K. Sawyer, 앞의 책, 121쪽.

36) 중앙일보사 편, 1983, 『민족의 증인』 1, 112쪽, 115쪽.

37) 크룰러계획이 군사고문단에서 준비한 주한미국인 철수작전계획이었다면, 극동군사령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내의 자국민들에 대한 소개계획을 준비하였으며, 1947년 12월 8일 'STRONGBARK', 1948년 4월 10일 'STRETCHABLE', 1949년 2월 23일 'TAILRACE'와 개정판인 'CULDESAC', 1949년 7월 'CHOW CHOW' 등으로 발전했다. 이 계획에서 극동군사령부는 96시간(4일) 이내에 민간인들의 소개를 완료해야 한다고 예상하였다(이상호, 2007, 『맥아더와 한국전쟁, 1945~195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17~118쪽).

계획은 국내소요 또는 북한 침략시 한국에 있는 미국인과 특정 외국인을 일본으로 안전하게 후송하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대사관과 군사고문단의 합동계획으로 실행될 수도 있었고, 분리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었다. 계획의 실행은 군사고문단의 작전참모(G-3)가 총괄하게 되어 있었다.³⁸⁾

전쟁 발발 직후 소개작전의 실행까지는 대사관과 군사고문단 사이에 실행 시점을 놓고 여러 차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쟁 발발 직후 고문단사령부가 처음으로 소개작전을 추진한 것은 6월 25일 오전이었다. 이때 군사고문단에서는 보급참모 겸 본부사령인 맥코넬(Thomas. MacConnell III) 소령이 주한미사절단 소개 계획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주한미대사 무초는 소개 작전의 실행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소개 작전이 현재 한국인들의 공황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했다.³⁹⁾

군사고문단에서는 6월 25일 오후 1시 무초 대사에게 소개 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재차 요구했지만, 무초 대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를 거부했다.⁴⁰⁾ 미국인 소개 문제와 관련해 군사고문단과 미 대사관 사이의 논쟁은 이날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 군사고문단에서는 주한미대사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소개준비를 착수하였다. 군사고문단 부참모장인 그린우드 중령은 맥코넬 소령에게 군인가족들을 자동차나 열차편으로 부산에 이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⁴¹⁾ 이 무렵 “무초대사의 요청을 받은 모든 기관은 즉시 철수하라”는 지시가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전달되었다. 오후 10시경에 지시를 전달 받은 무초 대사는 오후 11시경에 민간인 소개를 명령하였고, 26일 오전 1시에 인천으로의 이동이 시작되었다.⁴²⁾

민간인 소개작전이 진행되면서 군사고문단도 자체적으로 철수작전을 준

38) Robert K. Sawyer, 앞의 책, 110~113쪽.

39)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40) 중앙일보사, 1983, 『민족의 증언』 1, 112~113쪽.

41)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42) Roy E. Appleman, 앞의 책, 38쪽. 6월 26일 오후 7시, 682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총 2,000명의 미국인이 수송기와 선박편으로 한국을 떠났다(중앙일보사, 앞의 책, 114~116쪽).

비하기 시작했다. 고문단의 철수계획은 부참모장 그린우드 중령과 작전참모 세드베리 소령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26일 그린우드 중령은 세드베리 소령과 함께 향후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고문단의 행동노선으로 한국군 전술 부대에 있는 전술고문관들을 제외하고 기술 및 행정담당 고문관들과 이미 와해된 한국군 부대에 배속된 전술 고문관들을 한국에서 완전히 소개시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린우드 중령은 한국에 최소한의 인원만을 남기고 일본으로 철수하는 계획안을 고문단장 대리인 라이트 대령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라이트 대령은 처음에 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⁴³⁾ 이때 라이트는 미 육군부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서울-부산간의 어느 한 지점에서 군사고문단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해 놓고 있는 상태였다.⁴⁴⁾ 미 육군부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라이트는 독자적으로 철수를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선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또 26일 저녁에 무초 대사가 필수 요원들을 제외한 미 사절단원의 전원 철수를 지시함에 따라 라이트 대령은 그린우드와 세드베리가 작성한 고문단의 철수계획안에 동의했다.

라이트 대령은 6월 27일 주요 핵심요원들만을 한국에 잔류시키고 모든 고문관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육군본부와 대구·부산 지역의 제3사단에 배속된 고문관들을 제외하고 모든 요원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에 잔류하는 고문관들도 ‘자신들이 배속된 부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만’이라는 단서가 붙었다.⁴⁵⁾

고문단 철수 명령은 곧바로 실행되었는데, 약 400명의 고문관들이 일본으로 철수하기 위해 수원비행장에 집결하였다. 고문단사령부도 27일 오전 9시 경 주한미대사관 무선국이 폐쇄된 직후에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43)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44) “Message from the Chief of K MAG to DEPTAR”(1950. 6. 26). RG 319, Assistant Chief of Staff, G-3, Operations Records Section, March 1950~51, 091 Korea, Box 121.

45)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러한 상황은 극동군사령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고문단의 초기 혼란 상황을 더욱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⁴⁶⁾

수원에서의 고문단원 철수가 진행되는 동안 극동군사령관이 군사고문단장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 한 통은 고문단의 향후 행동방향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고문단에 전달된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전문은 “한국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이다. 당신의 이전 위치로 되돌아가라. 행운을 빈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고문단사령부는 철수 작전을 멈추고 아직 철수하지 않은 약 100명의 고문관들을 서울로 복귀시켰다.⁴⁷⁾

이렇듯 개전 초기에 고문단사령부의 혼란은 한국군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한국군 사단에 배속된 고문관들이 떠나는 과정에서 일부 한국군 사단장들은 울면서 만류하기도 했으며, 떠나기 전에 차후 작전방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⁴⁸⁾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전쟁 발발 당시 고문단의 지휘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1949년 7월 고문단이 정식으로 창설된 이후 군사고문단은 주한미사절단의 일부로서 주한미대사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다. 극동군사령부는 병참지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문단은 육군부를 통해 극동군사령부와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군 조직이면서도 민간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면서 군사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46) “George I. Back to Sawyer”(1953. 12. 16),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그린우드는 “27일 오전에 극동군사령부 부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장군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대사관의 스위치보드가 나가 동경과의 무선전화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라 고문단사령부가 극동군사령부와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가운데 서울 주변의 고문관들이 수원으로 집결하였으며, 중동부지역 및 대구 지역의 고문관들이 부산으로 집결하였다(위의 문서).

47)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48) “Early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 by Lieutenant Colonel Rollings S. Emmerich”(1953. 11. 20),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백선엽, 1989, 『군과 나』, 대륙연구소 출판부, 31쪽.

군사고문단사령부는 6월 27일 오후 6시경 다시 서울로 복귀했지만, 다음 날 한강교 폭파를 계기로 오전 3시에 잔류 고문단원들에게 서울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한강교 폭파와 관련해 당시 일선부대의 사단장들은 한강 이북지역의 부대를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본부의 독단적인 행동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 훗날 회고와 저서 등을 통해 비판하고, 한강 도하에 대한 적절한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다.⁴⁹⁾ 또한 한강교 폭파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다양한 추론들이 제기되었다.⁵⁰⁾

한국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던 군사고문단은 한강교 폭파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민감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미국 전사(戰史)에서는 폭파 과정과 그 결과만을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으며⁵¹⁾, 관련 자료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군사고문단 부참모장이었던 그린우드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한강교 폭파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7일 밤 12시경 라이트 대령은 우리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28일 오전 4시 까지 고문단사령부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는 숙소로 가서 약간의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침상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드베리 소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분개한 목소리로 한국인들이 지체 없이 한강교를 폭파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고했다. 나와 통화할 때 세드베리는 병력과 장비, 보급품들이 철수될 때까지 교량 폭파를 미루어 달라고 김백일 장군과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즉시 육군본부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군수참모부(G-4) 선임고문관 비어만 대령 및 세드베리 중령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김 장군을 발견했다. 김 장군은 교량이 지체 없이 폭파되어

49) 이웅준, 『회고 90년』, 281~184쪽; 백선엽, 앞의 책, 40~42쪽;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인생』, 56~57쪽; 장도영, 2001, 『장도영 회고록 : 망향』, 숲속의 꿈, 196~198쪽.

50) 이러한 주장은 언론사들을 통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사, 앞의 책, 144쪽과 조선일보사, 1982, 『전환기의 내막』, 348~376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무렵 관련자들이 모두 작고한 상태여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51) Robert, K. Sawyer, 앞의 책, 125~126쪽; Roy E. Appleman 저, 육군본부 역, 앞의 책, 40쪽.

야 한다(the bridges must be blown forthwith)는 국무총리(Prime Minister) 겸 국방부장관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렸다. 우리는 적이 실제로 가까이 올 때까지 교량이 폭파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했다. 우리는 교량의 조기 폭파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다. 그런 후 그는 떠났으며, 우리는 거의 24시간 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나는 즉시 라이트 대령의 숙소로 갔다. 내가 육군본부를 떠날 때 거대한 폭발이 있었으며, 교량이 폭파되었다. 그 시각이 오전 1시 35분이었다.⁵²⁾

그린우드의 증언은 장교들의 당시 계급과 폭파 시간의 오류를 제외한다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교량 파괴 이후의 상황 설명이 소이어나 애플만의 저서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강교 폭파는 군사고문단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명령은 최소한 국무총리 선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강교 폭파 이후 군사고문단은 오전 3시에 라이트 대령의 명령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의 철수를 시작했다. 군사고문단은 중요 자료들을 소각한 후 가솔린과 식량, 그리고 극히 제한된 개인 물품만을 소지한 채 약 50대 가량의 수송단을 구성하고 광진교로 향했다. 하지만 광진교도 이미 폭파된 이후였기 때문에 군사고문단은 서빙고로 돌아와 한강변에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 군사고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처지 준장이 지휘하는 극동 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 소속되었으며, 7월 4일 미 제24사단 딘 소장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⁵³⁾

(2) 전방부대 파견 고문관들의 동향

전쟁 발발 당일 38선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는 서쪽에서부터 제17독립연대(웅진), 제1사단(개성), 제7사단(동두천), 제6사단(춘천), 제8사단

52)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53) 한강교 폭파 이후의 철수 과정에 대해서는 Robert K. Sawyer, 앞의 책, 128~135쪽 참조.

(강릉) 순이었다. 이들 부대에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5명~17명에 이르는 고문관들이 배치되어 한국군 훈련 및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표〉 한국군 전투부대 및 선임고문관 현황(1950년 6월 25일)

구 분	부대명칭	예하부대	지휘관	선임고문관	
전방부대	웅진반도	제17연대	제1·2·3대대	백인엽 대령	스칼러키(Emil Skalicky) 소령 ⁵⁴⁾
	개성지구	제1사단	제11·12·13연대	백선엽 대령	로크웰(Lloyd H. Rockwell) 중령
	동두천지구	제7사단	제1·9·25연대	유재홍 준장	비렐로(Joseph W. Bilello) 중령
	춘천지구	제6사단	제2·7·19연대	김종오 대령	맥페일(Thomas D. McPhail) 중령
	강릉지구	제8사단	제10·21연대	이성가 대령	라슨(Gerald E. Larsen) 소령
후방부대	서울지구	수도경비사령부	제3·8·18연대, 기갑연대(육본)	이종찬 대령	페리스(Franklin G. Paris) 중령
	중부지구	제2사단	제5·16연대	이형근 준장	갤러거(James. S. Gallagher) 중령
	영남지구	제3사단	제22·23연대	유승렬 대령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 중령
	호남지구	제5사단	제15·20연대	이용준 소장	밀러(LeRoy B. Miller) 중령

※ 출처 : “Lloyd H. Rockwell to Lt Col, Roy E, Appleman”(1954. 5. 21), “James S. Gallagher to Robert K. Sawyer”(1953. 10. 5), “Early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 by Lieutenant Colonel Rollings S. Emmerich”(1953. 11. 20),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Colonel Wright to Lt Col McPhail, sub: Letter of Instructions”(1950. 7. 8),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7.

전쟁이 발발하자 군사고문단 참모들은 몇 개월 전에 수립했던 방어계획의 실행을 한국인들에게 권고하였다. 이는 웅진반도에서의 철수, 임진강 서쪽 부대의 남쪽 제방으로의 철수, 후방지역에 주둔하는 예비사단의 복상과

54) 전쟁발발 당일 웅진반도의 제17연대 선임고문관에 대한 기록은 현재 자료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950년 7월 8일 스칼러키(Skalicky) 소령이 선임고문관으로 나오는 문서를 고려할 때, 전쟁 발발 당일에도 제17연대 선임고문관이 스칼러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Colonel Wright to Lt Col McPhail, sub: Letter of Instructions”(1950. 7. 8),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7).

명령에 따른 반격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국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의 참모들은 즉시 각 사단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⁵⁵⁾

한국군 각 사단에 육군본부의 경계경보가 발령된 것은 오전 8시였다. 이때 육군본부에서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후방부대의 복상 명령을 하달하였다.⁵⁶⁾ 물론 이보다 2시간 앞서 육군본부에서는 비상사태 돌입을 지시하였지만, 그 내용은 휴가·외출·외박·교육 중인 장병들의 긴급 소집을 발령한 것으로 부대이동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다.⁵⁷⁾ 따라서 실제 한국군이 작전계획에 따라 비상조치를 시행한 것은 오전 8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군에 대한 비상조치가 내려질 무렵 군사고문단에서도 부참모장 그린우드 중령이 고문관들에게 경보를 발하여 원대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지시는 고문단사령부 소속의 고문관들에게만 전달되었으며, 일선 전투부대의 고문관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에 고문단사령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한국군 전투부대 소속 고문관은 대전에 주둔하던 한국군 제2사단 선임고문관 갤러거(James S. Gallagher) 중령이 유일하다. 그는 “25일 오전 9시에 고문단사령부로부터 전선 상황을 처음 들었지만, 이미 1시간 전에 한국군 제2사단 참모들로부터 북한군의 공격 사실을 들었다”고 회고하였다.⁵⁹⁾ 또한 대구 주둔 한국군 제3사단의 선임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오전 11시에 한국인 통역관이 북한군의 38선 월경을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문단사령부의 경보발령은 오전 9시 이후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55) Robert K. Sawyer, 앞의 책, 119쪽.

56) 이 명령은 오전 8시에 구두명령으로 전달되었으며, 12시에 작전명령 제84호로 정식 하달되었다. 작전명령 원문 사본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제2권, 806쪽에 수록되어 있다.

57) “작전명령 제83호”(1950. 6. 25. 06:00), 위의 책, 805쪽.

58) “Ray B. May to Sawyer”(1954. 2. 11),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59) “James S. Gallagher to Robert K. Sawyer”(1953. 10. 5),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문단사령부의 경보발령이나 행동지침과는 무관하게 38선에 인접한 사단의 고문관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했음이 각종 증언들을 통해 확인된다. 개전 당일 오전에 웅진반도를 철수한 제17연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사단에 배속된 고문관들의 행동 양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전 당일 서울로 철수하는 고문관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주둔지역으로 복귀하는 고문관도 있었다. 하지만 38선 인접 사단의 고문관들은 대부분 6월 26일까지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7일 오전에 발령되는 라이트 군사고문단장 대리의 명령이 있기 전의 일이었다. 각 사단별 선임고문관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성과 문산 지역을 담당하던 한국군 제1사단의 선임고문관 로크웰(Lloyd H. Rockwell) 중령에 대해 살펴보자. 로크웰은 1949년 11월에 한국군 제1사단 선임고문관으로 부임했으며, 그 전에는 6개월간 강릉의 제8사단 선임고문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개전 당일 그의 행적과 관련해 로크웰 자신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전쟁 발발 당일 모두가 그러했듯이 나도 서울에 있었다. 6월 27일(역자 주: 25일의 오기) 오전 5시에 백 대령과 그의 참모 몇 명이 내 집 문을 두드리고서 북한군의 공격을 알렸다. 내 집에서 백 대령은 자신의 참모들 중 2명을 서울로 보내 사단 장교들을 수소문하게 하였다. 나는 아내에게 제1사단 고문관들에게 북한군의 공격 사실을 알리게 하였다. 백 대령은 제13연대에 사전 준비된 방어진지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고서 우리는 문산으로 달렸다. 약 1시간 반 만에 우리는 문산에 도착하였다. ... 내가 생각하기로는 6월 29일 밤늦게 고문단사령부로부터 유선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모든 미국인들은 즉시 서울의 미군사령부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떠날 수가 없었지만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날 일본으로 소개되었다.⁶⁰⁾

60) "Lloyd H. Rockwell to Lt Col. Roy E. Appleman"(1954. 5. 21),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앞의 증언에서 로크웰은 개전 당일 오전 5시에 북한군의 공격사실을 알았으며, 개전 이틀 후에 고문단사령부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고 서울로 철수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로크웰 중령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백선엽은 『군과 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7시경, 사단작전참모 김덕준(金德俊) 소령의 숨겨진 전화가 내가 받은 6·25전쟁의 제1보였다. ... 차편을 얻을 겸 육군본부 근처의 관사에 사는 1사단의 수석고문관 로크웰 중령 관사를 찾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있었고 다행히 지프도 있었다. 급보를 전해주고 나는 로크웰 중령이 운전하는 지프를 타고 최경록(崔慶祿) 대령의 자택이 있는 남대문 쪽으로 향했다. 11연대장 최대령은 내가 사단을 비우고 있는 동안 선임 연대장으로서 사단장 대리도 근무중이었다. 이리하여 우리 세 사람은 수석의 사단사령부로 직행하게 됐다.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것은 9시경이었다. ... 파주국민학교까지 동행했던 로크웰 중령이 한낱쫓 군사고문단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 서울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총총히 사라졌다.⁶¹⁾

백선엽의 증언에 따르면, 로크웰은 25일 오전 7시 이후에 전황 소식을 접했으며, 9시경에 임진강 방어선을 돌아본 후 점심 무렵에 전선을 이탈한 것으로 된다.

로크웰과 백선엽의 증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신뢰성 면에서 백선엽의 증언이 보다 더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로크웰의 증언 중 날짜의 오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25일 오전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6월 25일 오후부터 7월 초까지의 상황 설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9일 고문단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철수했다”는 그의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단 선임고문관의 전선 이탈은 강릉의 제8사단에서도 발생했다.

61) 백선엽, 1989, 『군과 나』, 대륙연구소 출판부, 29~31쪽.

선임고문관인 라슨(Gerald E. Larsen) 소령과 소속 고문관들에 대해 당시 제8사단장이었던 이성가(李成佳) 대령은 고문관들이 25일 저녁에 모두 임의 철수했다고 하였다.⁶²⁾ 하지만 제8사단 소속으로 삼척의 제21연대 고문관이었던 캐슬러(George D. Kessler) 소령은 라슨(Gerald E. Larsen) 제8사단 선임고문관과 소속 고문관들이 “6월 26일 오후까지 강릉에 머물렀으며, 한국군 제6사단 선임고문관의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고 하였다.⁶³⁾ 그리고 자신들은 철수 전에 한국군 제8사단의 철수로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하였다. 양자의 증언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현재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한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출신 고문관들이 지프차로 며칠 밤낮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다”는 한국군 제3사단 선임고문관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제6사단과 제8사단 고문관들은 함께 행동했음이 분명하다.⁶⁴⁾ 하지만 이들의 철수도 고문단사령부의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제6사단 선임고문관 맥페일(Thomas D. McPhail) 중령은 제1사단과 제8사단 고문관들의 초기 행동과는 조금 달랐다. 맥페일은 “북한이 38선 연변의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38선 바로 북쪽의 ‘제한된 지역’에 위장한 탱크와 대포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정보참모부에 보고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으며, 6월 25일 오전에 춘천으로 돌아왔다.⁶⁵⁾ 이에 대해서는 당시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도 “25일 아침까지 서울에 있던 맥페일이 춘천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⁶⁶⁾ 이를 통해 볼 때, 맥페일이 파악한 북한군 동향에 따라 한국군 제6사단은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전 병력을 방어위

62) 「이성가 증언」(1965. 3. 9),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502.

63) Robert K. Sawyer, 앞의 책, 117~118쪽. 이 기록은 소이어가 1954년 2월 24일 캐슬러와 인터뷰 한 내용이다.

64) “Early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 by Lieutenant Colonel Rollings S. Emmerich”(1953. 11. 20),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6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582~583쪽.

66) 「김종오 증언」(1965. 3. 4),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164.

치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군의 주공(主攻)이 지향된 한국군 제7사단의 경우 선임고문관 비렐로(Joseph W. Bilello) 중령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당시 제7사단장이었던 유재홍 준장도 고문관들에 대해서는 “(25일 오전에) 무어 중위가 허겁지겁 달려와 2.36인치 로켓포를 쏘아도 전차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을 증언한다.⁶⁷⁾ 소이어 또한 동두천-의정부지역을 설명하면서 “6월 26일 오전 3명의 고문관이 서울에서 의정부를 향해 떠났는데, 이들의 복상 목적은 한국군 제2사단의 계획된 반격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제7사단 고문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⁶⁸⁾ 다만 당시 포천 지역을 담당하던 무어 중위가 언급되고, 제2사단 고문관들이 26일까지 의정부 지역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제7사단 고문관들도 최소한 26일 오전까지는 의정부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도 다른 38선 인접사단들의 고문관들처럼 26일 저녁 무렵에는 전선에서 모두 철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전선부대의 고문관들은 6월 25~26일 일본으로의 철수를 위해 대부분 전선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문관들의 전선이탈은 27일 오전에 군사고문단장 대리 라이트 대령이 승인한 고문단 철수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투부대에서의 고문관 철수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라는 인식을 한국군 내에 급속하게 확산시켜 전투력 약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는 한편으로 고문단이 전쟁 전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와 38선 전진배치라는 전쟁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고문단 내에서는 이것이 결코 전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만연되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67) 유재홍, 1994, 『격동의 세월』, 을유문화사, 121쪽: 「유재홍 증언」(1967. 10. 2),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3894.

68) Robert K. Sawyer, 앞의 책, 116쪽.

(3) 후방부대 파견 고문문관들의 동향

1950년 6월 25일 후방지역에는 제2사단이 대전에, 제5사단이 광주에, 제3사단이 대구에 각각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 사단은 2개 연대의 병력을 보유한 예비사단으로 예비부대들은 대부분 후방지역 게릴라 토벌작전을 위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이날 오전 8시에 제2, 제5사단 전 병력과 제3사단 제22연대 병력을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내렸다.⁶⁹⁾ 하지만 이들 후방사단의 실제 병력 이동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으며, 26일까지도 완료되지 않을 정도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의 제2사단은 서울 이동 명령이 내려진지 6시간 후인 오후 2시 30분에 이르러서야 대전에 주둔하던 제5연대 제2대대와 사단본부 병력을 열차편에 탑승시켜 서울로 향했다. 이들이 후방지역 부대들 중 첫 번째로 전선을 향해 출발한 부대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제2사단장이었던 이형근 대령은 '오전 10시경'에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비상소집을 건 후 가용할 수 있는 병력과 더불어 서울로 향했다고 증언한다.⁷⁰⁾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육군본부가 오전 8시에 구두로 하달했다는 '작전명령 제84호'는 실재(實在)하지 않는 것이 되며, 개전 당일 육군본부의 대응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누군가가 사후에 조작했을 가능성을 남겨두게 된다. 또한 반대로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개전 초기 육군본부의 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단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며, 또 개전 초기의 상황에 대한 그의 증언이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듯 그가 말하는 '오전 10시'는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쟁 초기 한국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6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1950. 6. 25). 육군본부는 25일 오전 8시에 '작명 제84호'를 하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제2사단은 안동에 1개 대대만을 남기고 전 병력을 서울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5사단은 남원에 제15연대 1개 대대, 백운산에 제20연대 1개 대대만을 남기고 모두 서울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은 제22연대를 서울로 차출하였다.

70) 이형근, 1993, 『군번1번의 외길인생』, 중앙일보사, 50쪽.

이와 관련해 이형근 대령의 장인으로 당시 광주의 제5사단장이던 이응준(李應俊) 소장은 “25일 아침 8시경에 지급 전보 한통이 광주에 있는 내 숙소(宿舎)로 날아들었는데, 공산군이 오늘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했고, 제5사단은 12시까지 용산에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회고한다.⁷¹⁾ 또한 당시 제2사단 선임고문관인 갤러거(James S. Gallagher) 중령도 “오전 8시에 한국군으로부터 북한군의 월경 사실을 들었으며, 그로부터 1시간 후인 오전 9시경에 고문단사령부에서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였다.⁷²⁾ 갤러거의 증언에 의하면, 제2사단 참모들과 군사고문관들은 이날 오전 8~9시경에 북한군의 38선 월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육군본부가 오전 8시에 하달했다는 ‘작전명령 제84호’는 실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제2사단장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묵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치명적인 실수임이 분명하다.

제2사단장과 선임고문관 갤러거 중령과의 관계는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갤러거는 “제2사단장이 전술 장교가 아니었으며, 전술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political appointee)’였다”고 혹평하였다. 나아가 그는 “첫 번째 경계명령⁷³⁾이 발효된 지 8시간이나 지난 후인 오후 2시 30분에야 첫 번째 기차를 출발시켰는데, 이를 두고 참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제2사단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⁷⁴⁾ 이렇듯 제2사단은 사단장과 선임고문관 사이의 불편

71) 이응준, 1982, 『회고 90년』, 산운기념사업회, 278쪽.

72) “James S. Gallagher to Robert K. Sawyer”(1953. 10. 5),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73) 갤러거가 말하는 ‘첫 번째 경계명령’은 오전 6시에 있었던 ‘장병 긴급소집 명령’인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3호’를 일컫는다.

74) “James S. Gallagher to Robert K. Sawyer”(1953. 10. 5),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한 관계가 전선으로 이동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⁷⁵⁾

한편 6월 27일 오전까지 한국군 후방부대의 전선 이동이 완료됨에 따라 후방지역에는 제3사단 소속 고문관들만이 남게 되었다. 제3사단 선임고문관인 에머리치 중령이 개전 소식을 들은 것은 25일 오전 11시 함안에서였다. 당시 제3사단장 유승렬 대령과 에머리치 선임고문관은 전날 진주에서 있었던 지리산지역 게릴라 토벌작전 회의를 마치고 대구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무전 시설을 갖지 못한 제3사단장과 에머리치 선임고문관 일행은 제3사단사령부로부터 함안경찰서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개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전 당일 제3사단 고문관은 제22연대의 서울 차출로 인해 3명의 고문관들이 서울로 떠남에 따라 사단 선임고문관 에머리치 중령과 제23연대 고문관들만이 남게 되었다. 에머리치 중령은 제23연대 고문관들과 함께 27일 오전 8시에 전달된 무초 대사의 부산집결 메시지를 받고 12시에 대구를 떠났다.⁷⁶⁾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제3사단 선임고문관 에머리치는 극동군사령부와의 연락을 담당할 목적으로 6월 28일 임시군사고문단사령부(Provisional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Headquarters)를 설치하였다. 임시군사고문단은 고문단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설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7월 1일 수원에 처치 준장이 지휘하는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가 설치될 때까지 실제로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연락사무소 역할을 수행했다.

규모는 비교적 작았지만, 부산의 임시군사고문단은 이 시기 극동군사령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취하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극동해군은 임시고문단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동해안 도로의 목표물에 대한 함포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약간의 정보라도 얻기 위해 임시고문단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임시고문단에서는

75) 위의 문서.

76) “에머리치 문서”(1953. 11. 20), 4~5쪽.

매일 두 차례에 걸쳐 확인 가능한 지역의 날씨 정보를 극동공군의 이타츠크(板付) 기지로 송신하였다.⁷⁷⁾

임시고문단사령부는 6월 28일 한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소속 고문관들이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빠르게 확장되었다. 6월 29일 부산의 임시고문단 규모는 22명의 장교와 34명의 사병, ECA 직원 6명, 의사 2명 등 총 64명이었다.⁷⁸⁾

임시군사고문단은 6월 30일 당시 대전에 위치하던 군사고문단사령부와 연락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제3사단 고문단 지부로 환원되었다. ‘임시군사고문단’이라는 공식 명칭은 사라졌지만, 에머리치 중령이 지휘하는 한국군 제3사단 고문단 지부는 한국군 지원과 후방지역 안정화라는 고유 업무 이외에 주일 미군의 한반도 이전에 따른 지원업무와 극동 미 해·공군의 작전지원이라는 추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7월 1일부터 미 지상군이 부산을 통해 들어오면서 제3사단 고문관들은 이들을 위한 철도수송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무지원에 동원되었으며, 극동공군의 항공기와 극동해군의 함포사격을 유도하는 전방항공통제관이나 함포사격통제관의 역할을 수행기도 했다. 또 고문관들은 통역관을 대동하고 북한군 포로 심문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비행장 경비 감독도 그들의 몫이었다.⁷⁹⁾

4. 군사고문단의 전선 복귀와 조직 재편

1950년 6월 27일 일본으로 철수한 약 400명의 고문관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온 것은 7월 2일이었다. 고문단원들의 복귀는 한국 전선에 처음으로 투입될 예정이었던 미 제24사단 딘(William F. Dean) 사단장의 지시에 따

77) “에머리치 문서”(1953. 12. 1), 15쪽.

78) “에머리치 문서”(1953. 12. 1), 16~17쪽.

79) “에머리치 문서”(1953. 12. 3), 27~30쪽, 32~40쪽 참조.

른 것이었다. 당시 일본으로 철수한 군사고문관들은 일본 규슈(九州) 고쿠라(小倉)의 미 제24사단 주둔지에 머물고 있었다. 한국으로의 복귀 명령이 내려지자 고문관들은 7월 1일 개전 이후 극동군사령부의 첫 탄약 수송선인 키슬리(Sergeant Keathley)호에 승선해 오후 2시에 일본을 출발했다. 이들은 7월 2일 오전에 부산항에 입항한 후 고문단사령부가 있는 대전으로 향했다.⁸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 약 1년 만인 7월 1일 미 전투부대가 복귀함에 따라 군사고문단의 지휘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었다.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7월 3일 한국에 도착하여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지시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USAFIK)를 설치했다. 아울러 그는 7월 4일부로 고문단의 작전지휘권도 맡게 되었다. 이로써 군사고문단은 주한미사절단(AMIK)의 일부로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고문단사령부 요원 중 일부가 미 제24사단의 일반참모 및 특별참모부로 소속이 전환되었다.⁸¹⁾

미 제24사단장의 통제하에서 고문단사령부가 실시한 첫 번째 조치는 전투부대 소속 고문관들의 원대(原隊) 복귀였다. 각 사단별로 고문관 복귀 일자 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군 제8사단의 사례를 볼 때, 7월 4~5일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군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제천에 가서 이틀 있으니까 부대를 떠났던 고문관들이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⁸²⁾ 제8사단이 제천으로 철수한 것이 7월 2일이었으며,⁸³⁾ 그로부터 ‘이틀 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고문관들이 사단에 복귀한 것은 7월 4일경이었다. 한국군 제8사단이 대전의 고문단사령부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단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고문관들의 복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0) “에머리치 문서”(1953. 12. 1), 24~25쪽.

81) Robert K. Sawyer, 앞의 책, 135쪽.

82) 「이성가 증언」(1965. 3. 9),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502.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권, 560쪽.

고문관들이 원 소속의 한국군 사단으로 복귀할 무렵 한국군은 대폭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7월 5일 한국군은 전쟁 발발 전에 8개였던 사단을 5개로 줄이고, 이를 지휘하는 군단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개전 초기부터 전투력을 비교적 온존하고 있던 중동부전선의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단들은 모두 재편성되었다. 특히 제3, 제5, 제7사단이 해체되어 수도, 제1, 제2사단에 흡수되었다.⁸⁴⁾

한국군 사단의 조직 개편에 따라 군사고문단도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라이트 고문단장 대리는 7월 8일 맥페일(Thomas D. McPhail) 중령을 제1군단 선임고문관에 임명하고, 각 사단 선임고문관과 연대고문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실시했다. 이때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17연대를 제외하고 선임고문관 전원이 교체되었다.⁸⁵⁾

이러한 고문단 내부의 조직 재편과 더불어 고문단사령부에서는 기존의 공식적인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군의 재편성과 작전지원에 주력하는 것으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1950년 7월 8일 라이트 대령은 고문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 고문단의 주요 임무가 한국군의 작전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초기 작전기간 동안에 군사고문단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고문단 순회팀들(roving teams)을 활용하였다. 이는 고문단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임시방편이었다. 현재 고문관들의 배치는 본래의 운영 방식대로 제자리를 찾았으며, 고문단 부관감실에서 맡고 있다. 아직까지 순회 활동을 하는 고문관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보직을 부여할 것이다. 한국군 부대들은 재편성과 재장비되고 공세작전 단계로 나가기 전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방어선을 형성, 유지하는 데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도록 주입시키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대들의 상대역(Counterpart)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주시시키는 것이 그대들의 주된 임무이다. 사실상 그대들이 한국군 부대를 지휘(command)한다.⁸⁶⁾

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254~257쪽.

85) "Colonel Wright to Lt. Col. McPhail, sub: Letter of Instruction"(1950. 7. 8), RG 338, KMAG, AG, Decimal File, 1948-53, Box 7.

라이트 고문단장 대리의 명령에 따라 고문단 인사참모인 버트 중령이 작성한 이 비망록은 6월 27일 고문단 철수 명령 이후 11일 만에 고문단사령부에서 소속 고문관들에게 보낸 첫 번째 명령이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7월 8일경에 이르러 전쟁 전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고문단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음을 보여 준다. 이는 7월 6일부터 고문단의 실제 병력이 파악되어 미 육군부에 보고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7월 7일자 극동군사령부가 미 육군부에 보내는 일일 정기보고서에는 고문단의 총인원을 장교 176명, 사병 272명 등 총 44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⁸⁷⁾

이 시기 군사고문단이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에서 미군의 참전을 공식 승인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7월 7일 유엔안보리는 미국이 준비한 '연합군 형성 지침 결의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⁸⁸⁾ 이에 따라 미국은 7월 8일 당시 극동군사령관으로 있던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고 극동군사령부 자체를 유엔군사령부로 전환시켰다.⁸⁹⁾

7월 8일을 기점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군사고문단도 정비 작업을 일단락 지었지만 전선의 상황은 미군과 한국군에 계속해서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군사고문단은 7월 14일 대전의 고문단사령부를 공식적으로 폐쇄하고 대구로 이동해 제8군사령부의 통제하에서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게 되었다.⁹⁰⁾

86) "Memorandum from R. L. Butt Jr. to all KA Advisors, KMAG"(1950. 7. 8), RG 338, KMAG, AG, Decimal File, 1948-53, Box 7.

87) "To DEPTAR From CINCFE"(1950. 7. 7), RG 330, Entry No. 208, Korea Teletype Conference July 1950, 군사편찬연구소 MF 1153. 극동군사령부가 미 육군부로 보내는 일일보고서에는 병력의 증감 현황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고문단과 관련한 기록은 1950년 7월 7일~8월 26일까지 나타나며, 8월 27일부터는 미 제8군사령부 병력에 포함시켜 적고 있다. 1950년 7월 7일~8월 26일의 고문단 병력 현황은 (부록 11) "1950년 7월 7일~8월 26일 군사고문단 병력" 참조.

88)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1950. 7. 7), *FRUS 1950*, vol. VII, 329쪽.

89) "히커슨 유엔문제 국무차관보가 국무장관에게"(1950. 7. 8), *RUS 1950*, vol. VII, 333~335쪽.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된 것은 1950년 7월 25일이었지만, 맥아더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곧바로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 지휘본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90) Robert K. Sawyer, 앞의 책, 137쪽.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로 한 시기에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전쟁 인식과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 하고자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앞서 1948년 8월 24일 241명으로 구성된 임시군사고문단(PMAG)을 설립했다. 임시군사고문단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을 정식으로 창설하기 위한 준비 기구였다.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함에 따라 7월 1일 부대 통상명칭 '제8668부대'로 군사고문단이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군사고문단은 주한미사절단(AMIK)의 일부로 편성되었으며, 미 대사의 통제를 받았다.

한국전쟁 이전에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교육훈련 지도와 비정규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한국군에 대한 군사고문단의 교육훈련 지도는 부대의 전술훈련 강화와 지휘관 양성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군사고문단이 마련한 훈련계획은 38선 충돌사건과 비정규전 상황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실행되더라도 훈련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고문단이 주관한 군사훈련은 한국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미군식의 훈련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한국군의 교육훈련을 지도하는 것과 더불어 군사고문단은 작전지원과 관련해 비정규전 지원과 한국군 방어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정규전과 관련한 군사고문단의 활동은 매우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49~50년 겨울, 남한 전역에서 실시된 한국군의 동계토벌작전에 군사고문단은 작전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부대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군을 지원했다. 이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군사고문단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정도로 만족스러워 했다.

군사고문단은 비정규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는 달리 38선 분쟁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시기 38선 분쟁에 대한 군사고문단의 방어적인 입장은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북진 주장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이를 반대하였으며, 또 38선 분쟁과 같은 민감한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군사고문단을 통해 한국군을 적절하게 제어하고자 했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군사고문단의 방어적인 입장은 작전계획의 수립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50년 3월 25일자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는 군사고문단에서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은 북한군에 의한 '전면전'을 가정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서울-38도선 사이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지도발'에 대한 방어계획이었다. 군사고문단은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와 38선 전진 배치라는 전쟁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시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 내에서 만연하던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소련의 괴뢰인 북한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군사고문단 내에서도 만연하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면전의 가능성을 도외시 했던 군사고문단은 개전 2~3일 내에 조직이 급속하게 와해되었다. 전선부대에 파견된 고문관들은 6월 25~26일 일본으로 철수하기 위해 모두 전선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고문관들의 전선이탈은 27일 오전에 군사고문단장 대리 라이트 대령이 승인한 고문단 철수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투부대에서의 고문관 철수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라는 인식을 한국군 내에 급속하게 확산시켜 전투력의 약화를 가속화시켰다. 고문단의 전선 재복귀는 1950년 7월 4일경에 이루어졌다. 이때 고문단사령부에서는 고문단의 조직재편과 더불어 기존의 공식적인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군의 재편성과 작전지도에 주력하는 것으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1950년 7월 8일 라이트 대령은 고문관들에게 한국군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사고문단은 1951년 중엽 휴전회담이 이루어지고 전선이 교착상태에 이를 때까지 한국군의 작전지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5,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임시군사고문단, 주한미군사고문단, 주한미사절단, 극동군사령부, 한국전쟁, 작전명령 제38호, 상대역제도, 크렐러계획, 국지도발, 전면전

<ABSTRACT>

The Recognition and Response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bout the Korean War

Park, Dong-ch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KMAG's recognition and response about the Korean War. If summarizing what is examined in this manuscript, it is as follows.

After the Truman Doctrine was announced in 1947, United States provided a military aid to a region except Europe and dispatched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he U.S. Army Group was dispatched to Greece·Turkey·Iran, and the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was installed in August 24, 1948 in Korea. PMAG was formally established as KMAG in July 1, 1949, since withdrawal of U.S. Army Force in Korea was complete.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was organized as a part of American Mission in Korea with the Embassy of United States in Korea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ECA) and received control of Ambassador of United States in Korea

KMAG selected all fields related to the Korean Army such as organization, oper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logistics as a domain of activities, and accomplished their plan and decisions to the Korean Army through a "Counterpart System". Activities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has developed while varying its scope and emphasis according to United States' military policy to Korea and changes of the situation of Korea, and continued changes in a command channel and scale by corresponding to it.

Before the Korean War, activities of KMAG laid emphasis on training and educational guidance, and anti-guerilla warfare of the Korean Army. Training guidance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can be summarized as reinforcement of unit's tactical training and training education of commanders. The training plan on the Korean Army that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planned was not properly performed, and training results were also not good, but there was a meaning in that the first systematic American-style training on the Korean Army was carried out. In relation with operational support, it had direct influence on support of anti-guerilla warfare and establishment of a defense plan of the Korean Army.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evaluated the result of winter subjugation operation against guerrillas during 1949~50 as 'very successful'.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ok a defensive position on the 38th parallel's dispute, unlike active intervention in subjugation operation against guerrillas. United States tried to properly control the Korean War through KMAG, while opposing assertion of going-north of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The defense plan of the Korean Army that KMAG visualized in this standpoint was connected to an 'operation order No. 38 of the Headquarter of the Army'. Its core content was a defense plan against 'local provoca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instead of preparing a full-scale war.

Even if KMAG sensed a war symptom such as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and forward deployment to the 38th parallel of the North Korean Army befor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t was convinced that it would never be connected to a full-scale war. As soon as the Korean War broke out due to this, organization of KMAG was seriously collapsed, and confusion was generated even in a command system. Councilors dispatched to forward units had withdrawn from the battle line in June 25~26. Withdrawal of councilors accelerated weakening of fighting power by rapidly spreading recognition like "United States gave up Korea" inside the Korean Army. What councilors again returned to the battle line was around July 4, 1950. At this time, the KMAG headquarters completed existing official duties and converted its duties into concentration on operational guidance

of the Korean Army. In July 8, 1950, an order that makes councilors consider direct command of the Korean Army was delivered to councilors.

Keywords :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merican Mission in Korea, Hq. Far East Command, Operation Order No. 38, the Korean War, Counterpart System, Plan Cruller, Local Provocation, Full-scale War